

김혜성·고우석, WBC 야구대표팀 사이판 1차 캠프 합류

등록 2026.01.06 19:52:12



[인천공항=뉴스시스] 배훈식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11.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윤서 기자 = '해외파' 김혜성(LA 다저스)과 고우석(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이 사이판에서 열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차 캠프부터 합류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김혜성, 고우석의 WBC 대표팀 사이판 캠프 합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사이판에서 WBC 대비 1차 캠프를 치르고, 2월1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실시한다.

지난달 발표한 1차 캠프 명단에는 KBO리그에 소속된 29명만 발탁됐다.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은 소속팀과 논의 후에 합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김혜성과 최근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한 고우석의 합류가 확정되면서 1차 캠프

프부터 함께 담금질에 들어가게 됐다.



[주피터=AP/뉴시스] 마이애미 말린스의 고우석이 17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참여해 투구하고 있다. 2025.02.18.

빅리그 진출 첫해인 지난해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힘을 더한 김혜성의 경우 시즌이 끝난 뒤 꾸준히 WBC 출전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나머지 해외파 선수들은 사이판 캠프에 합류하지 않는다.

이정후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방한 일정이 겹쳐 사이판 캠프 합류가 불발됐다. 샌프란시스코의 허락을 받으면 MLB 시범경기를 뛰다가 본 경기 직전에 대표팀에 합류할 확률이 높다.

우선 개인 훈련을 소화하며 빅리그 캠프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김하성과 송성문 역시 소속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다.

KBO는 2월3일까지 최종 엔트리 30인을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